



The Parable of The Talents, Willem de Poorter, National Gallery, Praha.

“하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마태 25,14)

■ 미사전례

- 제 1독서: 잠언 31,10-13.19-20.30-31
-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제 2독서: 1테살 5,1-6
- 복음 환호송: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
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 복음: 마태 25,14-30

■ 미사시간

-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7:30
일요일 오전 8:00
오전 10:00(영어)
오후 12:00(교중미사)
- 평일미사: 화 · 수 · 목요일 오후 7:30
금요일 오전 10:00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네 손으로 벌어 네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

○ 너의 집 안방에 있는 아내는, 풍성한 포도나무 같고, 너의 밥상에 둘러앉은 아들들은, 올리브 나무 햇순 같구나. ◎

○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

[영성적 삶으로의 초대] 영성이란 무엇인가 14

진정한 영성적 삶을 위해선 ‘분별’과 ‘정화’가 필요하다고 앞에서 말했다. 이러한 분별과 정화는 우리가 매일 처하는 수많은 상황들, 또 그 상황들이 펼쳐지는 이 땅 위에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내가 지금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는 곳은 달나라가 아니다. 지구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느님 손바닥 안의 존재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형성의 장’ 밖으로는 한발도 내디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왜? 하느님이 그렇게 섭리해 놓으셨다. 인간은 가정, 이웃, 사회, 세계, 우주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 이 관계성 안에서만 인간은 존재한다.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해서, 지구를 벗어난다고 해서 이 관계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 태양계와 은하계, 전 우주와 인간과의 관계성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세월 그 이전에 이미 섭리(선형성)되어 있었다.

근세기 들어 인류 문명이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기는 했지만 이것도 사실은 하느님의 놀라운 섭리를 ‘아주 조금’ 알아듣는 정도에 불과하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고 해도 우주의 신비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인간은 이러한 신비스런 세계를 창조하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동시에 겸허한 마음으로 섭리에 순응해야 한다. 돈과 권력, 자만이 위험한 이유도 자칫 하느님의 이러한 섭리를 망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지창조 이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느님보다 잘났다고 떠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럼에도 학계, 정계, 재계, 법조계 등 주위를 보면, 하느님 놀라운 작품의 1억만분의 1, 바닷가 모래알 하나 알고 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은 육신과 정신, 마음(영)의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육신의 에너지는 충동이고, 정신의 에너지는 열망이고, 영의 에너지는 갈망과 영감이다. 영은 특히 하느님으로부터 영감의 에너지를 받는다. 이 세 가지 에너지를 잘 조화시켜 하느님을 향한 합치의 성향(이 성향은 이미 내 안에 형성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형성의 신비다)을 키워야 한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누구나 나약함과 부족함, 한계성을 지닌 존재임을 인지하고 연민의 성향을 키워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 각자가 매일 접하는 상황들과는 융화의 성향을, 세계와 우주에 대해서는 인간 역량의 성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미리 형성하신 신비를 따르는 삶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만 세상을 본다. 남북문제에 있어서 38선만 없애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38선이 없어지면 18선, 28선, 48선, 68선이 생길 수 있다. 인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천성이다. 하느님의 뜻을 깨달아야 한다. 하느님의 성향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셨을까.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이걸 알아야 문제가 풀린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자.

나와 태양은 어떤 관계일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관계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태양은 항상 위에 있는 것”이라며 ‘묵상하기’를 멈춘다. 나와 강의 관계, 나와 바다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주어진, 당연한 것으로 착각한다. “당연하지”가 문제다.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감사할 수 없게 된다. 매일 우리 앞에 주어지는 신비에 무감각한 채, 그저 나에게 유익하면 선(善)이고 나쁘면 악(惡)이라는 단편적 생각을 가지고 대부분 살아간다. 죽기 전에 내가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죽기 전에 내가 보고, 만져보고, 느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정도는 깨닫고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선종 전에 고백하셨듯이, “고맙습니다. 나와 만났던 모든 것,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고맙습니다”라며 죽어야 하지 않겠는가. 주변의 잡다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제 나 자신에 대해 집중해 보자. 그렇게 집중하며 살기에도 인생 80년이 짧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늘 삶과 영에 활기를 불어 넣는, 에너지를 주고 계신다. 늘 깨어 있는 삶을 통해 그 에너지를 충만히 받아들여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움’(new)으로 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새로움을 위한 에너지는 어디를 통해 오는 것일까. 또 누구를 통해 오는 것일까. 바로 형성의 장 전체 안에서 인간 상호간 그리고 세상환경과의 만남을 통해 온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맞닥뜨리는 그 수많은 만남들 속에 신비가 숨어 있다. <가톨릭신문 제2763호 (2011년 9월 25일) -정영식 신부(수원교구 군자본당 주임)>

성삼 소식

- ☞ LA 교구 2차 헌금(LA교구 사회 복지 개선 기금)
(Catholic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
• 다음 주일(11월 22일)은 LA교구 2차 헌금 있습니다.

- ☞ 올트레아 모임
• 일시: 11월 22일(주일) 오후 3:00
• 모임방법: Zoom 온라인
• 문의: 간사 이진석(예레미야) ☎818-209-5856

- ☞ Thanksgiving Day 미사 안내
• 일시: 11월 26일(목) 오전 8:00(저녁미사는 없음)

- ☞ Zoom으로 하는 연수 신청자 모집
• 대 상: 창세기와 탈출기 성경공부를 마친분.
• 창세기: 12월 5일~ 6일(신청마감 11월 14일)
• 탈출기: 12월 12일~13일(신청마감 11월 28일)
• 회비: \$50.00
• 문의: 김효신(젬마) ☎213-655-7776
<email: sungsambible@gmail.com>

☞ 예비자 교리반 모집

- 개강 일시: 12월 6일(대림 제2주일)
- 성삼 공동체의 새 가족이 될 예비자들을 초대합니다.
※“예비자 봉헌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 주일학교 등록

- 수업방법: 온라인 수업(Zoom)
- 대상: 1학년-12학년
- 등록: 오전 10:00 영어미사 후. • 등록비: 없음.
<https://forms.gle/TzYpp4HaWXcJxyCv9>
(성삼 웹사이트에도 링크로 신청 가능합니다.)

- 반별 온라인 수업시간:

학년	요일	시간
고등부	매주일	오후 1:00
중등부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2:00
4-5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00
3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30
1-2학년	격주일(둘째, 넷째)	오후 12:00

- 문의: 이경란(젬마) ☎213-273-6797

우리들의 정성 (2020. 11. 8 현재)

교 무 금	3,670.00	교무금(19명) 권영주, 김민정, 김복선, 김애경, 김영길, 김주식, 김탁제, 박희정, 오만규, 오세림, 이강욱, 이 궁, 이기광, 이용배, 이윤희, 장덕훈, 최명희, 최순범, 최 호, 감사헌금(5명) 김민정, 김희경, 이윤희, 최현수, 한재춘, 기부금(1명) 이동익 성소후원금(6명)
주일헌금	1,097.00	
감사헌금	500.00	
기부금	1,000.00	



『위령성월 기도』 <시편130(129)>

- 깊은 구렁 속에서 주님, 당신께 부르짖나이다.
- 주님, 제 소리를 들어 주소서. 애원하는 제 소리에 당신 귀를 기울이소서.
- 주님, 당신이 죄악을 헤아리신다면 주님,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 당신은 용서하는 분이시니 사람들이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 나 주님께 바라네. 내 영혼이 주님께 바라며 그분 말씀에 희망을 두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이스라엘이 주님을 더 기다리네.
-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 바로 그분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리라.

☞ 기도합시다.

사람을 창조하시고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느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이 바라던 영원한 행복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주님,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영원한 빛을 그들에게 비추소서.

☞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 아멘





고려 여행사 3388 W. 8 th St. LA CA 90005 한 레지나 / 레오 Tel 213-385-6611	전 명세(페트릭), CPA RE BROKER INDIVIDUAL&CORP TAX, ACCOUNTING SERVICE, ESTATE PANNING, ADVANCED FINANCIAL & RETIREMENT PLANNING 전 페트릭&안나 (213)380.6437 patrickchyun@hotmail.com	올림픽 타운 꽃집 Olympic Town Flowers 1101 S. Vermont Ave #107 (버몬트 + 11가 코너) (323)RED-ROSE (213)480-3102 김 미카엘라(예육)	백양·쌍방울 (LA 속옷 전문 매장) 한국산유명속옷브라자거들 양말·스타킹·잠옷·백일·돌복 LA 웨스턴 백화점(9가+웨스턴) 서 엘리사벳 213-487-7676
Fire Way Fire Protection 소화기 점검해드립니다. 김항철(요셉) 213-352-3554 김 호노리나 213-200-3049 EE#25138	건강보험(커버드CA), 메디칼-메디케어, 생명보험(Life), 연금(IRA), 무료상담 213-249-2127 예영해(프란치스코)	글렌데일 브랜드 꽃집 1134 E. Chevy Chase Dr Glendale, CA 91205 ☎ 818-244-1359 Web: www.brandflorist.com 서 베로니카	결혼정보회사 듀오 USA 한국 며느리, 한국 사위, 믿을수 있는 듀오 USA 에서 인연을 만드세요 세실리아 : 213-383-2525(LA) 201-242-0505(NY)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건강/사업체/자동차 박 헬레나(예실) ☎213-500-9393	Immanuel Dumplings 임마누엘 만두 고기, 김치, 낙지, 고기&김치, 프로배지 만두. 이경은(소화테레사) ☎323-636-2577	Meeyoung J. Kim D.D.S Howard J. Yang D.D.S. <김 율리아, 양 파비아노> 437 W. Colorado St. Glendale ☎ 818-244-0299 일반치과, 치아미식, 보철치과	보스톤 치과 구강호 토마스AQ 213-380-2727 3663 W. 6th St. #203A. LA 한인타운 6가 와 아드모어 LA Medical Center
윤주익(클라라) Executive Manager Law Offices of Eugene Yun 부동산, 회사설립, 유언/상속, 교통사고, 형사법 213-388-3535/818-433-2891(C) www.eugeneyunlaw.com	대한 장의사 이 미카엘 213-700-1788	한 태 호 변호사 법률 그룹 KENNETH T. Haan & associates A PROFESSIONAL LAW CORPORATION 민사소송/사고, 상해/노동법/이민법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Tel (213)639-2900 www.haanlaw.com 한 마리노, 클라라	36년 전통의 한국장의사 HAN KOOK MORTUARY 323-734-5656(L.A.) 562-868-0788(세리토스/놀릭) 장례에 관한 모든 절차를 성심껏 도와드립니다.
불란서 안경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시니어 HMO 지정점 3104 W. Olympic Bl. LA. ☎ 213-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미주 자동차 정비 MIJU AUTO REPAIR & BODY 415 W. Broadway, Glendale (818)247-4400 이 크리스티나 & Karl	안진환(Tony), CPA 안토니오 & 스텔라 2140 W. Olympic Bl. #508 (213)344-9137/(213)380-5070	서 승혜 나탈리아 공인 회계사 3450 Wilshire Blvd #302 Los Angeles, CA 90010 ☎ 213-380-8389/213-272-4988 e-mail: jeune1004@gmail.com
Hankook Plumbing 가정, 식당, 상가 모든 플러밍 설비 및 수리 아무리 작은 일도 성심껏 봉사 "막힌곳은 뚫어드리고 뚫린곳은 막아드리고" 홍 벤자민 818-321-4776	이동현 토마스 아퀴나스 내과/노인 의학과 213-674-7758 2727 W. Olympic Blvd. Suite 309 LA, CA 90006 한남체인 건너편 이전개원	광고주를 기다립니다.	구 본욱 한의원 사암침(빠른 효과) (8가와 Hoover 코너) 213-427-1299
이호제 MD Ho je Lee 가정 주치의 Glendale (818)246-3306 K-Town (323)452-0656	뉴스타 부동산 김영재(요한) 213-840-1237 Office: 213-385-4989 newjohnkim@newstarrealty.com BRE#:02033433	WESTERN EXPRESS 자동차 종합 정비 OIL CHANGE•TUNE-UP•BRAKE •CHECK ENGINE•SMOG CHECK 258 S. Western Ave. LA 90004 (213)365-0333 강안토니오	금강안경검안과 GOLD OPTOMETRY L.A. : (213)384-1001 (로데오 플라자 몰내) G.G. : (714)530-1001 (H 마트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 E. 21가
수녀님 참기름 멕시코 농민 일자리 제공을위한 건강하고 맛있는 참기름 주문전화: 213-220-1711 kakaotalk ID: puracollective www.puracollective.com	태양 여행사 2707 W. Olympic Blvd.#101 LA, CA 90006 서울 사무소 02-775-9702 김경희(골롬바) 213-252-9700	두드림 종합 보험(주) 대표: 제임스 양(아고보) 생명/은퇴연금/로딩케어/사업체/주택 자동차/건강/메디케어플랜 ☎:213-388-8055 LA 월서 + 세라노	광고주를 기다립니다.